

國際高麗學會

會報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ISKS)

1993.3 Vol.3

- 운영위원회의
- 국제고려학회 정기학술지 발간에 관한 제안서
 - 제 2 차 국제고려학회총회
 - 내가 본 국제고려학회와 나의 제안
 - 교육부회 학술회의
 - 회원연구동향
- 특집 : 제4회 이중언어학 국제학술회의
 - 회원기고
 - 알림

國際高麗學會本部事務局

목 차

■ 운영위원회의	1
<자료> 회칙개정안 요강	2
■ 국제고려학회 정기학술지 발간에 관한 제안서	5
문정인 (미국켄터키대학교수)	
■ 제 2 차 국제고려학회총회	
○ 활동보고	7
송남선 본부사무국장	
○ 재정보고	9
김성수 본부사무차장	
○ 회칙개정	10
양관수 본부사무차장	
○ 역원개선	10
오청달 부회장	
<자료> 개정된 국제고려학회회칙	11
■ 내가 본 국제고려학회와 나의 제안	13
윤석구 부회장	
■ 교육부회 학술회의	
조선족교육의 특징 및 전망	17
김영림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	
■ 회원연구동향	
1. 藏田雅彦(韓国·朝鮮의 기독교수용사 연구)	25
2. 김경진(울곡의 <誠>철학사상의 특징과 그 현실적 啓示)	26
3. 노삼열(한국인 이민자들의 우울증 증상, 캐나다 한인 이민자들 중에서의 우울증)	28
4. 김응택(두만강삼각지역개발계획)	29
5. 고행남(Fatigue Behavior of Sintered Si ₃ N ₄ Under Rotary Bending and Static Fatigue)	29
6. 정만우(The Monte Carlo Simulation for Morphology of a Si: H Deposited with plasma CVD Method)	30
■ 특집 : 제 4 회 이중언어학 국제학술회의	31
■ 회원기고	
○ 고병운- 제 4 차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하여	36
○ 이지인- 朝·日국교정상화의 문제점	37
■ 알림	
○ 제 1 차 미국코리아학 국제학술회의	42
○ OIC 국제학술회의	43
■ 편집후기	44

운 영 위 원 회 의

1. 제 2 차 운영위원회의

제 2 차총회에서 토의, 결정할 당면문제를 검토, 조정하기 위해서 1992년 8 월 21일 저녁, 中国北京五洲大酒店에서 열렸다. 운영위원중에서 일신상의 사정때문에 불참하게된, 길영환 교수, 이형모 교수를 제외하고 전원 참석했다.

토의의제는 ①역원개선문제 ②남북학자 가입후의 운영문제 ③제 5 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와 본 학회의 관계, 개최지, 주최형식에 관한 문제 ④회칙개정 등이었다. 토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역원개선

현재의 역원이 유입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강희용 부회장의 사임요청을 받아들여, 후임으로 윤석구(현봉학 미주지역본부회장이 추천) 교수를 추천하고, 유럽담당 사무차장으로써 Silke씨를 추가한다. 각부회의 위원장밑에 부위원장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토의한 결과, 모든 부회가 일괄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각부회별로 구상하여 결정해도 무방한 것으로 되었다.

(2)남북가입후의 운영문제

북조선측은 사회과학원이 본 학회와의 창구역할을 해주게될 것이므로 회원모집 등의 문제는 원활하게 해결될 것이다. 남한측에는 자유민주주의사회로써의 다양성이 있어서, 다양한 학문경향과 학술단체가 많이 있다. 본 학회는 창립 때부터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대립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양측에 대하여 <적극적 중립>을 관철하기로 기본적 자세를 천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 입장에서 서서 남한의 정신문화연구원, 남북민간학술교류 추진협의회(민학추), 학술단체협의회(학단체협)등 모든 학술단체와 학자, 연구자들에게 본 학회의 회원가입에 있어서 공평한 기회를 주어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3)제 5 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와 본학회간의 문제

첫째, 주최형식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으나 본 학회가 독자적인 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모든 운영위원이 찬성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大阪經濟法科大와 北京大가 공동주최로 이끌어 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와 협조해서 해 나가는 방법으로써 제 5 차부터는 국제고려학회도 주최자로 참가하는 三者共同主催형식이 무난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 주최형식에 대해서는 大阪經濟法科大, 北京大와 계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둘째, 개최지로써는 평양이 제 1 후보지로써 적합하다. 제 2 후보지로써는 서울도 좋으나 북조선측 학자들의 참가가 불투명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도 북조선의 사회과학원측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4) 회칙개정

이번 제 2 차 총회에 제안하게 된 회칙개정안은 1991년 8월 3일 중국·북경에서 개최된 제 1 차 운영위원회의에서 토의, 결정된 것과, 그후 회장단, 운영위원, 본부사무국의 협의를 통해서 새롭게 제안된 개정안을 묶어서 제출한 것이다. 새롭게 제안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1992년 8월 21일 제 2 차 운영위원회의(中国, 北京五洲大酒店)에서 토의했다. 이회의에서 현행의 회장·부회장제도를 개정하자는 길영환 교수(정치법률부회 위원장)의 제안을 문정인 교수가 대리로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동의장제로 바꾸어서 대표공동의장 1명과 약간 명의 공동의장을 두고, 공동의장은 각지역본부 대표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토의한 결과 본 학회가 창립된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학회운영의 기본 골격을 바꾸기에는 아직 불안정한 점이 있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서 이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그 외에 회칙개정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하여 총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되었다.

총회에 제출된 <회칙개정안 요강>은 다음과 같다.

<자료> 会則改訂案 要綱

ISKS第一次運營委員會(1991년 8월 3일, 中国北京五洲大酒店)에서 결정된 会則改訂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리아(Korea)학이라는 표현을 회칙 제 1 조에만 남기고 제 2 조 이하는 코리아학이라고 한다.

둘째, 각 지역분회의 명칭을 지역본부로 칭하기로 한다.

셋째, 회칙 제 4 조의 회원자격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부분을 삭제한다.

넷째, 부칙 1 항에 지역본부를 삽입한다.

새로 提案된 改訂案

①사무국 담당 副會長(現行)을 삭제(제 3 조 1 항 2)

취지: 組織의 擴大경향에 따라서 (사무국의 운영, 구성, 제반, 실무사항을 사무국이 융통성있게 결정, 운영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②고문 직책의 신설: 본 학회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3 조 1 항 3)

③운영위원회의 구성범위의 개정

現 行: 회장, 부회장, 부회위원장

개정안: 現行+ 각지역대표+ 본부사무국의 局·次長

④ 상무위원회 구성원 개정 (제 3 조 2 항 3)

現行의 구성원에 본부사무국장을 추가

⑤ 지역조직의 명칭의 개정 (제 3 조 4 항 4)

분회 → 지역본부, 지부, 분회의 명칭중 지역에 적합한 명칭을 선택, 사용할 수 있다.

⑥ 부칙 1 항의 개정

상무위원회, 사무국, 부회별위원회 → 상무위원회, 지역본부, 부회별위원회, 사무국의 세칙은...

2. 제 3 차 운영위원회의

시 기 : 1992년 8월 23일 오전 9:30~12:00

장 소 : 中国, 北京五洲大酒店

이번 총회도 원만하게 끝난 다음이어서, 모든 운영위원들이 밝은 얼굴로 회의장에 모였다. 신임부회장 윤석구 교수, 신임사무차장 Silke씨도 참석한 가운데 19명의 운영위원이 참가하여 다음과 같은 의제를 토의하고 결정했다.

(1) 남북회원가입후의 운영문제

지난 2년간은 해외에 거주하는 코리아학 연구자 중심으로 학회가 운영되었으나 이제 회칙이 정식으로 개정되어 남북의 학자가 회원으로 가입되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여, 앞으로 남북학술교류를 포함하여 코리아학 발전을 위해, 더욱의 목적으로 활동하자는 의견에 모두 동조했다. 가장 중요한 당면문제는 남북의 회원가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남북의 회원규모는 93년에 들어가서 조정해야하지만, 우선 남북 각각 250명정도 각 부회별로 균형있게 회원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한국측에서부터 회원가입을 추진해야하지만 현재, 통일원의 방침으로 한국내의 학자가 국제고려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는 상황이므로, 금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한국정세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두번째, <고문>추대문제에 대해서, 제 1 안은 남북에 각각 1명씩의 고문만 두고 다른 고문형태는 보류한다. 제 2 안 남북에 각각 명예고문을 두고 大阪經濟法科大에서 고문을 추대한다라는 두개의 제안이 나와서 열띤 토론을 한 결과 표결에 부쳤다. 제 1 안에 대해서 19명의 운영위원중 찬성 15명이 나왔으므로 채택되었다.

(2) 제 5 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

본 학회가 주최자로 참가하게 되면 학술회의의 명칭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개최지는 제 1 후보지로서 평양을 정하고 1993년 5 월까지 북조선측과 계속 접촉하여 교섭하기로 되었다.

제 5 차 주최형식에 대해서는 ①ISKS 단독주최 ②ISKS, 大阪經濟法科大, 北京大의 공동주최, ③②의 안에 개최지의 대학, 또는 학술단체추가 등 세개의 제안이 있어서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 문제는 상무위원회와 본부사무국에 일임하기로 결정되었다.

(3) 남북회원가입의 추진

북조선측을 아시아본부(중국)가 맡고 한국측은 일본지부가 맡아, 분담하여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4) 다른 학술회의와의 관계

93년 Michigan 대학에서 열리는 코리아학 국제회의는 본 학회 미주지역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며, 남북한, 중국, 일본에서도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AKSE의 Berlin 회의가 93년 4 월 16일~20일까지 100~120명 규모로 열리게 되었으며, Helga 부회장이 이 회의에 중심으로 참가하므로 본 학회에서도 적극 지원한다.

금년 Hawaii 대학에서 열린 <환태평양 한국학 학술회의>가 앞으로 2년에 1회씩 개최될 예정인데, 이와 같은 학술회의와 본 학회는 우호적으로 협조한다.

(5) 학회지 발행

제 2 차 운영위원회의에서 文正仁 교수의 초안을 바탕으로 토의했다. 앞으로 이 문제는 文교수와 본부사무국이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6) 회비의 사용문제

각 지역본부에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는 그 지역본부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7) 여성부회의 신설

한국측에서 제안해 왔으나,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되었다.

(8) 러시아(지부) 예산책정

미하일, 박부회장의 요청이 있었으나 93년도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본부사무국에서 검토하기로 되었다.

국제고려학회 정기학술지 발간에 관한 제안서

文 正 仁 교수

1. 제안의 배경

국제고려학회가 창립된지도 벌써 2년이 경과했다. 창립 2년동안 고려학회는 괄목할 만한 양적 팽창을 이룩했다. “Korea 학”연구와 관련된 기존학회중 고려학회만큼 학문분야별, 국가별, 세대별 대표성을 포괄하고 있는 조직은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은 두가지 다른 기능의 수행과 균형을 이루어야만 고려학회가 국제적인 학회로서의 굳건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Korea 학”연구와 관련된 학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며, 다른 하나는 한반도 및 한민족이 처한 현실적 문제해소를 위한 참여, 봉사적 노력이라 하겠다. 후자의 경우, 통일문제를 비롯한 현안문제들을 사무국 수준, 또는 각지역분회 및 부회 수준에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Korea 학”연구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직의 방대성과 학문분야별 다원성등 때문에 가시적인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제안은 “Korea 학”연구의 질적 향상과 국제고려학회의 학문적 위상을 고양시키기 위해 격조높은 국제수준의 정기학술지를 발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학회지 발간의 당위성과 목적

국제고려학회가 국제적 수준의 정기학술지를 발간해야 하는 당위성과 목적은 크게 다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일반 학술단체의 성패여부는 그 회원중심으로 발간되는 학술지의 성격과 질에 달려 있다 하겠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볼 때, 학술단체의 위상은 그 단체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에 의해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고려학회가 국제수준의 학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제수준의 학술지를 발간해야 한다고 사려된다.

둘째, 현재 “Korea 학”과 관련된 국제수준의 학술지 발간은 극히 미미한 상태라 하겠다.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가 발간하는 Korea Journal,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그리고 미국에서 발간되는 Journal of Korean Studies 정도가 “Korea 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적 학술지라 하겠다. 그러나 이나마도 재정적 빈곤과 원고구독의 한계 때문에 1년에 1회 또는 부정기적으로 출간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연구의 경우, Modern China, China Quarterly 등 격조 높은 학술지들이 있다. 일본 연구만 하더라도 그 성격은 다소 다르더라도 Japanese Studies Quarterly가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학회지 발간의 당위성은 매우 높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국제고려학회 회원에 대한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도 학회지의 발간,

배포는 시행되어야 한다. 학회가 운영되려면, 회원의 회비 납부가 있어야 하며, 또한 학회는 회원의 회비납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학회지의 발간, 배포는 이에 상응하는 합당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더구나 국제수준의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는 최근의 국내외 학계 추세로 미루어 보아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은 회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국제적 발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지 발간의 내용

가. 학술지는 인문,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나누어 발간할 수 있는데 본 제안서는 우선 인문, 사회과학분야에 한정한다.

나. 학술지는 국제성을 유지하기 위해 英文으로 발간하며 가칭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로 한다.

다. 일년에 2번 발간하고 일반학술지와 유사하게 학술논문과 서평으로 구성한다. 단, 성공여부에 따라 계간지로 격상시킬 수 있다.

라. 동 학술지는 엄격한 심사제(referee system)에 의해 게재 논문을 선정하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선정된다.

따라서 본 학술지는 학술회의 발표논문을 게재하는 Conference Proceedings와는 다른 성격을 띤다. (미국 아시아학회의 Journal of Asian Studies가 여기 제안된 학회지에 상응하는 모델이 될 수 있음.)

마. 동 학술지의 편집인 및 편집위원은 회장단에 의해 선정되나, 편집위원의 자격은 국제고려학회 회원여부에 제한받지 않는다. 학문적 탁월성과 국제적 포괄성이란 대승적 목표달성을 위해 비회원이라 할지라도 “Korea 학”에 일가견을 가진 학자들은 편집위원에 위촉될 수 있다.

바. 英文발간에 따른 불이익과 불공정성을 극소화하기 위해 인문, 사회 분야의 각 부회장이 천거하는 우수한 국문원고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영문으로 번역, 부정기적으로 게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문독자의 범위를 확충하기 위해 동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 중 화제가 될 만한 우수논문들을 선정해 국문으로 번역하고, 이들을 편집해 1년에 1회씩 국문특집을 발간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사. 출판, 배포, 구독자관리, 재무등, 본 학술지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오사카 본부사무국에서 관장하며, 게재논문의 확보, 심사 등 편집에 관한 업무는 편집인이 관장한다.

아. 본 학술지는 회비를 납부한 국제고려학회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비회원이라 할지라도 구독료를 납부할 경우 구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일반대학 및 연구기관등 “Korea. 학”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유료 배포토록 한다.

자. 본 학술지의 소요비용은 인문, 사회과학분야 회원들의 회비 및 일반 구독료로 충당하되 정상수지가 이루어지는 단계까지는 본부사무국에서 재정지원토록 한다.

차. 본 학술지의 발간추진을 위해 가칭 “국제고려학회 학술지 발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들의 추진을 담당토록 한다.

제 2 차 국제고려학회총회

제 2 차 총회가 <제 4 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가 열린 中国北京의 <北京국제회의센터>에서 1992년 8 월 22일 오후 3:00~5:00까지 예정대로 개최되었다. <제 4 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한 회원전원과 林吉鎮 교수(Michigan 주립대학 International Studies and Programs 학장) 이재훈 박사등 93년 7 월에 Michigan 대학에서 개최 예정인 코리아학 국제학술회의에 대해서 협의차 참석한 몇 분의 업저버가 참석한 가운데 식순에 따라서 진지하게 총회가 진행되었다.

○식순

사 회 : 양 오 진(본부사무차장)

개 회 사 : 최 응 구(회장)

사업보고 : 송 남 선(본부사무국장)

재정보고 : 김 성 수(본부사무차장)

회칙개정 : 양 관 수(본부사무차장)

역원개선 : 오 청 달(부회장)

역원인사 : 회장, 신임부회장 인사

폐 회 사 : 미하일 박 (부회장)

● 國際高麗学会活動報告(보고자-송남선 본부사무국장)

I. 活動報告

1. 学会創立의 經緯

- 世界的規模의 學術的常設機構의 必要性.
- 積極的中立堅持. (海外거주 研究者로 구성된 学会)

II. 活動內容

1. 國際會議

- 北京書画세미나(1991. 5 .27~29)
- 國際高麗醫學學術會議(1991. 7 .25~27)
- 코리아학少壯學者國際學術討論會(1991. 7 .28~31)
- Washington D.C 會議(1991. 5): 본 학회 정치법률부회와 Georgetown 대학 동아시아연구소가 공동주최 발표된 논문과 토의 내용은 먼저 영어로 논문집을 발행하기로 되어 있다.

2. 地域組織

○米州本部創立(1991.7.13)

○아시아第二分会의 研究会活動(세계의 研究会): 東·西日本지역 연구회, 과학·기술부회연구회)

3. 會員의 推移: 현재 약 700명

4. 出版物(會報 1, 2)

5. 第一回運營委員會

1991년 8월 3일, 中国 北京五洲大酒店에서 개최

회의 내용: ○會則變更

○地域組織名稱의 變更

○평양, 서울 連絡事務所 개설을 추진, 현재 추진중

III. 活動計畫

1. 南北이 모두 참가하는 世界的 規模로서의 코리아학의 活性化

2. 学会定期論文集의 發行. (文正仁 교수가 초안을 준비, 앞으로 추진할 것임).

3. 朝鮮学会學術討論會의 主催.

4. 다른 学会, 研究機關과의 協力強化.

○韓國二重言語学会, AKSE, Hawaii大学에서 개최된 한국학회議

5. 會員, 地域組織의 擴大.

○南北코리아, 豪州, 유럽

○米國코리아学会(Michigan大学과 본 학회 미주지역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

● 國際高麗学会財政報告(보고자-김성수 본부사무국차장)

본 학회가 창립된 직후인 1990년 9월부터 92년 3월말까지 수입과 지출내역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재정보고했다. 회계기간동안에 있었던 중요한 학술회의(北京書畫展, 코리아학소장학자국제학술토론회, 국제고려의학학술회의)에 지출된 예산집행내용에 대해서도 세부명목별로 집계하여 총회에서 보고해야 하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본부사무국의 준비부족으로 정확한 재정보고를 하지 못했다.

또한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각 지역본부의 독자적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되어있으나 각 지역본부의 사무국체계가 미비되어 있어서 각 지역본부별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못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재정보고를 차후에 회원들에게 별도 보고하게 될 것이다.

2차 총회에서 김성수 사무국차장이 구두로 보고한 재정보고내용에 대해서는 미비된 내용을 수정·보완해야 되는 문제때문에 이번 회보에 게재하지 못하게 되었다.

회원의 기고를 요망합니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연구동향을 계속 소개하고, 기존의 저서라도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내주면 소개하려고 한다. 기고할 분들은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서 원고를 보내주시길 바라고 있다.

- ① 연구동향-최근 발표한 논문, 각종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것을 2,000자 이내로 요약할 것.
- ② 저서소개-저서 한 권과 내용을 2,000자 이내로 요약할 것.
- ③ 수필, 자기주장, 의견 등을 투고하실 분은 2,400자 이내로 요약할 것.
- ④ 사용언어-기본적으로 한국(조선)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연구동향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해도 좋다. 일본어를 쓴 경우, 한국(조선)어로 번역해야 하므로 시간과 경비가 이중으로 부담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원고는 한국(조선)어로 써 주길 바란다.
- ⑤ 원고 보낼 곳-본부 사무국
- ⑥ 원고 보낼 시기-원고를 접수하는데 특별히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 보내도 좋다. 그러나 회보 발행은 매년 2회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게재시기는 회보 발행시기에 따라서 결정 될 것이다.

● 회칙개정(보고자-양관수 본부사무국차장)

이번 총회에 제안할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 1 차 운영위원회의에서 토의 결정된 것과, 그 후 본부사무국, 각운영위원, 각지역본부가 제안하여 협의해 온 것을 <국제 고려학회회칙(개정안)>으로써 통합작성하여,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사전에 배부하였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양관수 본부사무국차장이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하고난 다음, 회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채택되었다. 추가질문에 들어가서, ①회칙의 개정일자와 실시일자를 명기할 것, ②회원의 권리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①에 대해서는 회칙개정안이 확정된 날짜(1992년 8월 22일)부터 실시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명기하기로 했으며, ②의 제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토론한 결과 본부사무국이 앞으로 이 제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제 3 차 총회에 제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역원개선(보고자-오청달 부회장)

오청달 부회장이 제안설명했다.

첫째, 본 학회가 창립된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학회운영의 기본적 조직체계를 바꾸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다만, 남북의 학자들이 새롭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으므로 남북을 대표할 수 있는 학자를 고문으로 추대하는 것이 좋다.

둘째, 본 학회의 창립과정에서 공로가 많은 강희웅 부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강부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후임으로 윤석구 교수(미국 Saginaw Valley State Univ. 물리학교수 겸 물리학과과장)를 추천했다.

셋째, 유럽지역담당 사무차장으로서, Silke Mahrenholz(Humboldt 대학 한국문화연구소 연구원)씨를 추천했다.

넷째, 현봉학 의료부회위원장의 후임으로 이형모 박사(미국 Medical College of Virginia 교수)가 문화예술부회의 위원장에는 金亨直 선생(中国中央人民放送局長)이 임명되었으며 그 이외의 부회위원장은 현행대로 유임되었다고 보고했다.

윤석구 교수의 신임부회장에 대해서 총회에 동의를 요구하여 대부분의 찬성으로 결정되어 윤교수는 자신을 본 학회부회장으로 선출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맡겨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서, 신임 사무차장 Silke씨를 소개했으며, 본 학회 창조회원이며 학회의 재정에 지대한 공로를 쌓아 온 김준효 이사장(大阪정보컴퓨터전문학교, OIC)을 소개했으며, 회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상으로써 본 학회의 제 2 기 회장단, 운영위원 사무국장·차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구성되어 도약의 단계를 맞이한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결의로 막중한 사명과 책무를 수행해 나가게 되었다.

〈자료〉 국제고려학회회칙(개정된 회칙)

제 1 조 총칙

본 학회는 코리아(Korea)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결성된 학술단체로 그 명칭을 국제고려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SKS>)로 한다.

본 학회의 취지는 코리아(Korea)학의 보다 활발한 연구와 그를 통한 학자들 사이의 교류와 친목에 있다.

제 2 조 사업

1. 코리아학 국제학술회의 개최와 학술단체 및 학자들 상호간의 교류
2. 코리아학에 관한 중요과제의 공동연구
3. 코리아학 관계자료의 발굴, 정리 및 교환
4. 학회지를 비롯한 학술도서 및 자료의 간행
5. 연구자 양성과 연구비의 보조
6. 기타 코리아학의 연구와 연구자들의 교류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3 조 조직

1. 1)회장 1명과 부회장 약간명을 두고 그 밑에 부회를 둔다.
2)회장, 부회장, 부회별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본 학회의 교문을 둘 수 있다.
2. 1)회장, 부회장, 부회별 위원장들, 각 지역본부의 대표, 본부사무국의 국장, 차장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2)운영위원회는 본 학회의 운영과 사업계획을 책정하여 그에 대한 비준을 차기 총회에서 받는다. 총회는 2년에 한번씩 한다.
3)회장, 부회장, 본부사무국장으로 상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무위원회가 일상사무를 처리한다.
3. 본부사무국은 잠시 일본 오사카에 두기로 한다.
4. 회원이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는 지역본부(분회,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회원

1. 코리아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학자는 모두 회원으로 될 수 있다.
2.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본부사무국 또는 각 지역본부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5 조 재정

본 학회는 회비, 기부금, 기타 학회수입으로 운영한다.

<부칙>

1. 상무위원회, 부회, 지역본부, 사무국의 세칙은 각 부서별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칙개정은 총회를 개최할 때 회원의 제안에 대하여 참가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3. 이 회칙은 1992년 8월 22일 제 2차 총회에서 개정, 확정되어 확정된 시일로부터 실시한다.



본 학회의 제 2차 총회 회의장 단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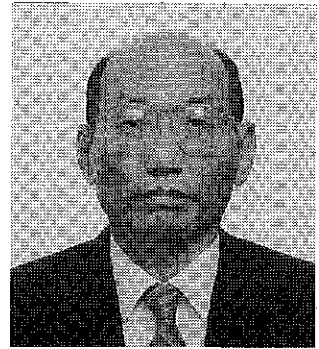
(좌로부터 양관수 사무차장, 송남선 사무국장 오침달 부회장, 최응구 회장, 미하일·박 부회장, 헬가·피히트 부회장, 윤석구신임 부회장, 김성수 사무차장)

내가 본 국제고려학회와 나의 제안

윤 석 구 부회장

이 글은 국제고려학회 양관수 본부사무국차장의 요청에 의해서 국제고려학회회보를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1990년 8월에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 3회 국제고려학회에 초대를 받았을 때, 저는 이 학회가 전세계의 코리아학을 연구하는 학자와 과학기술을 포함한 여러 학술분야의 코리안학자 등으로 구성된 학술회라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 있는 몇몇 한국학자들이 이러한 학회의 구성을 토의한 바가 가끔 있었지만, 뚜렷한 결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침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 고에너지(소립자)물리학회에 참석차 가는 길이라, 이틀동안 오사카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일 관심사였던 이북(D.P.R.K.)학자가 11명이 참석하고 이남(R.O.K.)에서 2백여명(?)이, 일본, 중국, 구라파, 동구라파, 전 소련 등에서 1,100명의 참석한 학자들을 보고 감개무량하였습니다. 특히 남북통일에 대한 토론회에는 북쪽에서 사회과학원 부원장(박창곤 교수),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회장(김철명 교수), 남에서는 한국북방정책연구소 소장(전통일위원장, 이세기)등의 중요인물들이 패널리스트였으며, 그외에 이남에서 국회의교분과위소속인 국회의원 조순승씨 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인물들의 참석으로 보아, 이남, 이북에서 이 학회의 중요성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북의 학자들이 모여 통일에 대한 토론을 국제회의에서 한 것은 이 토론회가 처음이라고 보이므로 그 의의가 적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1년 여름에 국제고려학회의 미주지부가 결성되면서, 미주지역회장(현봉학)의 부탁으로 미주지역의 과학기술분과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1992년 8월 초에 제 4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가 북경에서 열려서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 약 62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북에서 29(?)명, 이남에서 120(?)명,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서 상당한 수가 참석하였고, 전소련 및 구라파에서 온 분도 있었습니다. 회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과학기술분야의 발표도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만찬회와 코리안의 음악 및 연예행사에서 주최측에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북경대학의 국제회관에서 베풀어진 과학 기술자를 위한 만찬회에는 북경대학의 부총장 및 안태상 교수 등의 참석으로 서로 친선

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학술회의가 끝난 후에 열린 국제고려학회총회에 참석하니 이곳에서 제가 국제고려학회의 부회장(2년 임기)으로 뜻밖에 추천이 되고 당선이 되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회장이신 최응구 교수(북경대학), 부회장이신 오창달 교수(오사카 경제법과대학), 미하일 박 교수(모스크바 국립대학) 및 헬가 핏트 교수(독일의 훔볼트대학) 등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사카 정보컴퓨터 전문학교의 이사장(김준효) 및, 이번 학회의 실행위원장(문도평 교수), 재일조선인 과학기술협회 회장(이시구 박사), 국제고려학회의 본부사무국국장(송남선 교수)과 기타 사무국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학회 후에 있었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국제고려학회의 운영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와 기타 모임에서 몇 분들이 앞으로 과학기술분야의 활동을 확대했으면 하는 의사를 교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북과의 과학기술 활동을 앞으로 제의해 줄 것을 표현한 분도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사장, 회장, 부회장, 사무국의 여러분, 미주지부회장 및 운영위원, 총회에 참석하신 회원들께 저를 부회장으로 선택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예상한 것과 같이 이 학회는 다른 학회와 달리 특유한 성격과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학회는 전세계의 코리아학의 학자들과 코리언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학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국제정세하에서 이남과 이북의 모든 학술분야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여러 단체와 학자들이 이런 모임을 과거에 시도했었지만, 대부분이 여의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학문에는 국경이 없으나, 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한일합방이후에 정치적 망명으로, 또는 독립운동에 가담하느라 많은 코리언들이 만주, 중국, 소련, 미국 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합방후에 자각한 많은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서양의 문화도입과 과학기술의 연마를 위해서 외국으로, 특히 제2차세계대전중에 일본, 만주, 중국 등으로 강제노동 또는 이민간 사람이 허다했고, 전후에 미국, 구라파 등에 유학간 사람, 혹은 이민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코리언들의 해외진출로 해외교포의 수가 4백만을 넘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이들이 자기가 택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에 충성을 하는 동시에, 늘 자기가 자라난 또는 자기선조가 태어난 조국/모국에 늘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국전쟁 이후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4년간 유학을 왔다가 35년 이상을 미국에서 살게 되었지만, 코리아에 대한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거의 백만명의 코리언중에는 약 8천명의 과학기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중에 물리학자만도 약 천명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에 박사학위를 소유하는 물리학자만도 5백명 이상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해외 코리언과학기술자의 인간적 자원과 그 외에 이미 귀국한 수천명의 해외에서 공부한 과학

기술자가 한국의 전후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와서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전세계가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가운데, 해외 특히 미국에 영주하는 코리언의 과학기술 두뇌는 장래에 코리언의 과학기술을 세계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전세계가 2차대전 후에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냉전과 열전을 초래했지만, 소련 및 동구라파의 붕괴는 이데올로기 갈등의 무의미함을 실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자는 데에 있다는 재각성을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갈등이 있었고 무의미한 이데올로기의 싸움을 빚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세계의 각성으로,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 있던지 코리언의 세계적 생활수준의 확보와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도우려면, 서로 만나서 친밀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사카와 북경에서 경험한 것은, 오랫동안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 온 우리 코리언이지만, 공통된 언어와 문화, 사회풍습 및 같은 조국을 가졌다는 공통적인 배경으로 순식간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은 외국서 오래 살아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역사적 시점에서는 이 경험이 전세계에 흩어진 우리 코리언을 통합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2가지의 제의를 국제고려학회의 여러분께 하는 바입니다.

1. 첫째는 우리가 세계 어디에 있던 간에 코리언학자들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돕는 길을 열어 주자는 것입니다. 특히, 이북에 있는 여러분야의 학자들과 서로 협력하고 돕는 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제까지 여러 국제정세와 국제적 제한으로 인하여 이북과 그외의 나라에 있는 코리언 학자와의 교류가 활발치 못했던 것이 유감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모로 이 국제적 제한이 완화되어가는 추세가 있으므로, 이제까지 여러나라에 사는 코리언에게 있었던 학술교류의 활동을 팽창하여 그 활동범위를 넓혀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온세계의 코리언을 위해 코리언학자들이 서로 도우므로써, 그 개개인이 사는 나라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세계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제일차적으로 미국에 있는 과학 기술분야의 저명한 코리언 약 10명으로 구성하여 친선 및 장래의 활동협의를 목적으로 이북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으로 서로의 친선을 맺으며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분야와 그 범위를 토의하고, 나아가서 미래 활동의 기반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둘 수 있겠습니다.

2. 둘째로는 해외에 영주하는 코리언학자에게 수여하는 학술상을 창설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남에서는 여러 학술상을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수여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이북에서도 그러한 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

나 해외에 영주하는 코리언학자에게 코리언이 수여하는 명성있는 학술상이 아직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극동의 다른 나라 출신에는 노벨수상자들이 있지만, 코리언에게는 아직 없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코리언이 여러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오르려면 학문에도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학문에의 공헌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공헌한 사람을 널리 알리고 인정함으로써 젊은 세대에게 모범과 가능성의 희망을 부여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년에 한번씩 국제고려학회회의시 학술상을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분야에 1명과 과학, 기술, 의학분야에 1명에게 수여할 수 있으면 이 학회를 더욱 흥미있고 존경받는 학회로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학술상을 1994년에 있을 국제고려학회의 폐회식 때 수여함으로써 회의의 절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상의 대상자를 이북과 이남의 학자까지 포함해도 되겠으나, 그것은 좀 더 구상 및 토의를 해서 결정되기 바랍니다.

1993년 7일부터 11일까지 국제고려학회의 미주지부주최로 미국 미쉬간주의 이스트 랜싱에 있는 미쉬간 주립대학에서 국제고려학회를 열게 되었으니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는 국제고려학회, 서울의 한양대학과 미쉬간 주립대학 및 기타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학술회의입니다. 제가 맡은 과학, 기술 분야에는 지금 현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는 화학 및 과학기술과 사회분야는 변종화 교수(University of Lowell), 수학분야는 김순규 교수(University of Connecticut), 물리학분야는 광노환 교수(University of Kansas), 화공학분야는 황선탕 교수(University of Cincinnati), 생물학분야는 이수규 박사(National Institute of Health), 과학기술의 고등교육과 연구정책의 패널은 주동일 박사(Lawrence Berkeley Laboratory), 기업자의 패널 및 공업전람회 관계는 고흥국 박사(Chrysan Industry), 기계공학분야는 김준목 학장(University of Rhode Island), 환경과학분야는 이시덕 박사(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1세기를 향하는 코리어의 과학기술의 패널은 한무영 교수(Duke University), 컴퓨터과학분야는 김광희 교수(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항공/우주과학분야는 이성원 교수(University of Maryland), Biotechnology 분야는 김성호 교수(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께서 Session 준비계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과학 기술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이 학술회를 빛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부회장으로 부임한 기회를 계기로 이 글을 인사의 말씀으로 대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여러동료 학자들과의 협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과 연말을 기쁘게 지내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며 학문연구에 많은 성과를 내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론물리학 박사, 미국 미쉬간주 세기노 벨리 주립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겸 학과장)

교육부회 학술회의

조선족교육의 특징 및 전망(연구토론회종합)

김 영 립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와 국제고려학회 교육부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조선족교육의 특징 및 전망연구토론회》가 1992년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연길시에서 펼쳐졌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교육과학연구소,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 연변대학, 료녕성과 길림성의 교육학원 민족교연부,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위원회, 동북 3성 조선문교재협의판공실, 연변민족교육개혁판공실, 연변교육학회, 연변제 1 사범학교, 연변주내의 현시급 교육연구소와 교원연수학교 및 중소학교 등 10여개 단위의 민족교육사업일군 3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에 국제고려학회회장 최응구 교수와 중앙교육과학연구소에서 축사를 보내왔다. 회의에서 4차의 학술보고가 있었고 17편의 논문이 교류되었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여러 층차, 여러 측면에서 중국조선족교육의 특징이 비교적 폭넓고 깊이있게 토론되었고 상이한 측면에서 중국조선족교육의 미래발전이 구상되었다. 또 당면에 조선족교육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인 조선족학생들이 학습부담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아래에 이번 회의에서 토론된 내용을 간추려 종합한다.

1. 조선족교육의 특징에 대하여

회의참가자들은 조선족교육의 특징에 대해 열렬하게 토론하였는데 토론에서 밝힌 특징을 개괄적으로 적으면 아래와 같다.

(1) 이중언어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조선족교육의 기본적인 특징의 하나이다.

회의참가자들은 조선족중소학교(중등사범학교와 유치원을 포함하여)에서는 조선말과 글로 가르치고 조선문교재를 사용하며 과정안에 조선어문을 배비하고 교수시간수를 보장하여 조선어문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조선족의 민족어문교육은 중국경내의 다른 소수민족의 어문교육에 비하여 민족언어문자사용의 광범성, 민족어문교육체계의 완정성, 민족어문교육력사의 안전성 등 특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조선족 중소학교에서는 한어문 교수를 민족교육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한어문 교수의 질을 높이는 것을 전반민족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간주하고 학교교수에서 한어과목을 중요한 필수과목으로 취급한다고 하면서 조선족학교에서의 한어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적지 않은 회의참가자들은 조선어와 한어는 조선민족문화와 한민족문화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본민족문화를 표시, 상징, 표현하기에 조선어문

교육과 한어문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이중문화교육(혹은 이중문화를 재움)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았고 아울러 특징으로 보았다.

회의참가자들은 조선족교육에서 조선어문과 한어문교육을 진행함으로 하여 한족교육을 비롯한 기타 민족교육에 비해 학제, 과정, 교수계획, 교재출판, 교원양성, 학교운영형식 등 면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게되며 또 이로부터 이중언어교육은 조선족교육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된다고 공동으로 인정하였다.

(2) 조선족문화를 교수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족교육에서 인류의 공통된 문화(례를 들면 수학, 물리화학, 생물)등을 교수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원문화 특히 한민족문화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배경에서 한민족문화(례를 들면 한어문)를 비롯한 여러 민족의 문화(례를 들면 중국력사)를 교수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조선민족의 언어문자, 문학예술,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을 교수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특히 본민족의 문화를 교수내용으로 삼고있는 것은 하나의 특징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3) 학교운영형식에서 단일민족학교를 꾸리는 것이 특징이다.

회의참가자들은 조선족은 단일민족학교를 꾸려오면서 단일성을 견지하였고 단일민족학교를 꾸리기 어려운 산재지구의 향촌에서만 한족학교에 조선족학급을 설치하고 조선말과 글로 교수를 하면서 역시 단일성을 견지하여 왔다고 인정하였다.

(4) 조선족교육은 비교적 완전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족교육은 기초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보통교육으로부터 전문기술교육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으로부터 과외교육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완전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민족교육행정관리도 비교적 완전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5) 조선문교재를 자체로 편집, 출판, 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문교재의 편집, 출판, 발행사업은 주로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에서 맡고 있는데 조선족중소학교의 조선어문, 한어문, 외국어, 음악, 체육, 미술 등 교재를 자편(自編)하고 정치, 력사, 지리, 화학, 수학, 생물, 자연지리 등 교재는 전국통용교재를 번역하여 출판하며 조선족사범학교, 유치원 및 직업기술학교의 부분적 교재를 편집, 번역하여 출판하는 외에 민족리론상식, 민족력사, 향토지리 등 교재와 교수참고서 사전류, 교원연수교재, 학생과외도서 등을 편집하여 출판한다. 이처럼 조선족은 자기 민족의 출판기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문교재협의기구, 조선문교재심사기구도 갖고있다.

(6) 조선족사범교육과 민족교원연수계통에 주로 의거하여 중소학교교원을 양성하고 강습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민족대학인 연변대학과 조선족중등사범학교에서 주로 민족문화자질을 소유한 중소학교(유치원포함) 교원을 양성하고 동북3성 교육학원 및 현시급의 교원연수학교에서 조선족교원들의 재직강습을 맡고 있다. 이처럼 본민족의 사범교육과 민족교원연수계통에 의거하여 비교적 방대한 자기 민족교원대오를 양성하고 강습시키는 것

이 특징이라고 논의되었다.

(7)민족의 교육열에 의해 조선족교육발전이 추진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문화승상, 교육승상의 전통을 지닌 조선족은 이조초기에 마을마다 서당을 꾸렸고 금세기초에 분분히 반일사립학교를 일떠세웠으며 건국전에 민족고등교육, 민족사범교육과 민족출판기구 등을 창립하였고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민족학교교육망을 기본적으로 형성하였다. 건국후인 50년대에 소학과 초중교육을 보급하고 청장년 가운데서의 문맹퇴치사업을 기본적으로 완수하였다. 그리고 또 농민대학을 창립하고 로농과의교육망을 형성하였으며 민족적특색을 갖춘 사회주의 교육체계를 기본적으로 확립하였다. 이 모든것은 국내 소수민족가운데서 처음으로 해놓은 일이었다. 이 처럼 전민족의 드높은 교육열에 의해 민족교육이 부단히 추진되어 왔는바 교육열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재부라고 공동히 인정하였다.

(8)학교분포의 분산성과 분포지역의 변원성 특징이 있다.

회의참가자들은 조선족학교분포의 분산성은 잡거를 위주로 하고 집거, 잡거, 산기가 결합되어 있는 조선족의 거주특징과 연결되며 분포지역의 변원성(边远性)은 조선족이 주로 중국 동북 3성에 본포되어있는 특징과 연결된다고 인정하였다.

(9)조선족교육은 국제성특징을 가지고 있다.

회의참가자들은 중국조선족은 조선, 한국 및 세계각지에 있는 조선인들과 혈연적, 문화적 련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 이로 하여 조선족교육은 국제성 특징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어떤 회의 참가자는 력사면으로부터 해방전 조선족교육은 다른 소수민족의 교육에 비해 근대교육의 발달과 발전이 빨랐을 뿐만 아니라 외민족의 강압적 동화에 대한 항거성, 민족의 자주성, 민중참여의 광범성을 나타냈다고 제기하였으며 어떤 회의참가자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교육의식에서는 교육을 민족의식, 청백, 의리, 지조와 성(誠), 경(敬)사상의 주입으로 리해하였고 또 뜻을 세워주는 것으로 리해하였으며 교육의 중심은 인간존중의 정신, 경애의 정신, 협동의 정신을 배양하는데 있다고 리해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조선족교육의 특징에 대한 연구는 갖 첫걸음을 떤는바 계속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탐구되어야 한다고 일치한 견해를 모았다.

2. 조선족교육의 미래발전에 대하여

조선족교육의 미래발전에 대하여 회의참가자들은 모두 각별한 중시를 보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조선족교육의 미래발전을 구상하는 기본립장을 아래와 같이 제기하였다.

첫째, 조선민족교육에는 우리 나라 일반교육이 갖고 있는 공성문제외에 또 자체의 특수성문제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조선민족교육은 우리 나라 교육의 공성과 자체의 특수성의 변증법적통일속에서 자기의 발전을 기해야 한다.

둘째, 조선민족교육은 다민족국가에서의 소수민족교육이다. 그러므로 조선민족교육은 반드시 민족적인 현대교육, 현대적인 민족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셋째, 조선민족교육은 조선민족의 발전과정에서 우선적인 지위에 놓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발전결과에서도 조선민족 발전의 주요한 하나의 징표로 되어야 한다.

넷째, 조선민족교육의 발전은 외부의 영향력을 내생력으로 전환시켜 민족자신의 주관능동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킬 때에야 비로소 정확한 방향으로 부단히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립장에 기초하여 회의참가자들은 조선족교육의 특징을 살려나갈데 대해서와 교육개혁을 심화시킬데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1)조선족교육의 민족적 특성을 살려나갈데 대하여 회의참가자들은 조선족교육의 민족적 특성은 장기간의 교육실천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바 앞으로 계속하여 살려가야 한다고 한결같이 인정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국제화가 추진되는 정세하에서 각국에서는 배양목표를 제정할 때 국제성, 민족성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교육에서의 민족성과 사회성은 모순되지 않으며 민족적 특수성을 가져야 진정 사회화될 수 있으므로 민족화와 사회화를 동시에 중시해야 한다고 제기되었다. 토론에서 한 연구자는 조선민족특색을 가진 중국인을 양성하는 것이 조선족교육의 목표가 아니겠는가고 제기하였다. 한 회의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민족은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조선족이다. 이러한 이중성이 우리 교육의 양성목표와 교육내용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레를들면 양성목표면에서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의 큰 전제도 있어야 하거니와 조선족으로서 자기 민족문화를 사랑하고 계승, 발전시킬 요구도 제기하여야 한다.

회의참가자들은 조선족교육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견지하여 우리의 후대들로 하여금 이중언어를 겸통(兼通)하고 이중 문화를 한몸에 융합시킨 적응력이 강한 인재로 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중언어교육에 대해 언급할 때 조선어문교수를 선행시키고 한어문 교수를 강화하며 외국어를 일찍 접촉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가 하면 《민족어맹(民族語盲)》을 최대한으로 감소시키는것을 하나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민족어문교육의 조기화, 이중언어교육의 효율화 민족언어사용의 사회화를 효과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민족어문교육을 더한층 강화할 것을 주장하면서 회의참가자들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면에서 기본상 인식을 통일하였다.

첫째, 중소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치고 학습하는 것을 조선민족교육에서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삼고 확고부동하게 견지하여야 한다.

둘째, 조선족중소학교의 과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조선어, 한어, 외국어 이 세과목의 배정비례를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 조선어문 과목은 주되는 기초도구과로서 교수시간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조선어를 잘 배우게 해야 한다. 동시에 한어도 잘 배우게 하여 두가지 언어를 겸통하게 함으로

써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데 이바지되게 하여야 하며 한가지 외국어도 배우게 하여야 한다.

셋째, 민족교육의 전반체계내에서 민족어교수의 질적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넷째, 조선어의 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서 조선어의 광범한 사용이 학생들의 조선어학습을 추진하게 해야 한다.

교육내용면의 민족적 특성을 살려가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민족문화교육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위주로 되었다. 적지 않은 회의참가자들은 민족교육내용의 완성성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민족교과서자편을 통해 실행하는 민족어문, 민족음악, 민족무용, 민족체육 등 교육을 강화함과 아울러 민족력사, 민족풍속, 민족례절, 민족자아의식 등에 관한 교육을 계열화, 제도화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에 들여와야 한다고 하였고 어떤 회의참가자는 조선족민속을 단독학과목내용으로 도입하고 조선족민속과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어문의 우세를 발휘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조선어문과는 교수요강으로부터 교재출판 및 대학시험출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에 능히 우리 민족문화의 정화를 전수하는 것을 통해 민족의식을 배양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조선어문과는 단순히 언어와 문자를 가르친다는 협의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드시 조선어문교수를 통해 민족문화를 배워주어 우리 민족의 업적과 우수한 전통을 알게함으로써 학생들의 민족자부심과 민족응집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학교운영형식에서 단일민족학교를 꾸리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일부 참가자들은 단일성을 견지하는 전제하에서 단일민족학교를 기본모형으로 하고 부동한 지구와 부동한 실제정황에 따라 여러가지 교육모형을 탐구해야 한다고 하였고 어떤 회의참가자는 외국의 중간학교, 유아학교, 한글학교, 토요일학교 등을 참조할 수 있다고 제기하면서 여러 경로를 거쳐 여러가지 형식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조선족 교육체계를 보다 완벽화해야 하는바 당면에는 직업기술교육체계를 세우는데 진력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자체로 교재를 편찬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교재를 민족화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우리 민족교육을 발전시켜 세계의 발달한 교육과 한길에 나란히 서게 하려면 조선문교재 건설에서 반드시 자체로 편찬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 원인에 대해 부분적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로 교재의 민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로 우리 민족교육을 본민족의 특성에 맞게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이다. 교재의 민족화에 대해 언급할 때 조선문교재에 우리 민족의 생활, 감정, 민속, 문화재 등 민족적 특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민족사범교육과 민족교원 연수제통에 의거하여 조선족교원을 양성하고 강습시키는 것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회의 참가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일부 참

가자들은 당면에 조선족교원의 자질을 제고하는데 모를 박아야 한다고 제기하였고, 조선족 초중교원 대오건설이 박약한 고리라고 하면서 교원 대오건설의 중점은 초중교원 양성사업에 두어야 하며 조선족 초중교원을 양성하는 기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민족교육열의 지속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교육에 대한 민족사회의 광범한 참여를 확보해야 하며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교육가치관념에서 가일층 탈피함으로써 응시교육으로부터 자질교육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담보해야 한다고 인정하였고 우리 민족의 교육열에 새로운 시대적 내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높은 차원의 교육열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동감을 표시하였다.

조선족 교육분포를 조절하는 문제에서 인력, 물력, 재력을 집중하여 기숙제 학교를 꾸리는 것은 교육효과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개혁, 개방의 열조속에서 국외의 조선민족들과 교육면에서의 교류를 강화하고 선진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조선족교육의 개방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2) 조선족교육개혁을 심화시킬데 대하여

조선족교육개혁을 심화시킬데 대하여 회의 참가자들은 아래와 같은 몇가지 면에서 견해를 내놓았다.

첫째, 교육실험을 강화해야 한다. 이중언어 교육개혁실험, 학제, 과정, 교재실험, 산재지구에서의 조선족 교육특징과 발전법칙에 관한 실험, 각 학교목교수실험 등 교육실험을 참담게 조직하고 진행해야 한다.

둘째, 현대 사회발전과 민족 경제발전 수요에 적응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모를 박아야 한다. 어떤 회의 참가자는 조선족 초중중학생들이 졸업하여 사회에 나간 후 적응능력이 약하고 실제 생산활동중에서 적용성이 높지 못한 현상태로부터 착안하여 우리 민족초중교육에서 적용형로동자를 양성하는데 그 취지를 두어야 한다는 관점을 내놓았다.

셋째, 교육구조를 조절하여야 한다. 어떤 회의 참가자는 우리 민족의 인재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밝히고 산업구조조절에 따라 교육구조도 조절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넷째, 교육개혁을 교수령역에 심화시켜 교수질을 가일층 제고하며 과학기술혁명의 도전에 맞서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과학연구를 강화함으로써 교육개혁실천에서 부딪치는 실제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야 한다.

회의 참가자들은 조선족교육의 미래발전을 토론하면서 조선족교육의 전망에 대한 연구를 더욱 다그칠 것을 한결같이 다짐하였다.

3. 조선족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경감대책에 대하여

통일 조선족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둘러싸고 열렬한 토론을 벌였으며 나아가서 학습부담 경감대책을 탐구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조선족 중소학교 학생들은 한족학생들에 비해 조선어문외에 한 어문을 더 배워야 하기에 학습부담이 더 과중하다고 지적하였다.

어느 단계의 학생들에게 학습부담이 많은가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은 초중단계의 학생들에게 학습부담(여기에서의 학습부담은 한족 학생들에게 있게 되는 학습부담과 같은 것도 포함)이 많다는 견해에 동감을 표시하였다. 초중 학생들의 학습부담에 대해 언급할 때 부분적 사람들은 구체적인 실례로 설명하였다. 어떤 사람은 초중 학생들이 온종일 책더미와 《문제바다(題海)》속에 잠기며 명절이나 휴식일이 따로 없고 문예, 체육활동에 참가할 겨를이 없으며 텔레비나 방송을 시청할 시간이 없다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초중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것처럼 천진烂漫하던 어린이들이 초중학업을 마치고 나면 거개가 창백한 얼굴에 근시안경을 건 무심한 청년으로 되어버린다고 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과중한 학습부담으로 빚어지는 후과를 아래와 같이 제기하였다.

첫째로 학생들의 심신건강이 엄중한 해를 보게 된다. 과중한 학습부담은 정신부담, 신체부담을 동반하기에 학생들의 심신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학생들의 전면발전, 개성발전이 저해를 받는다. 과중한 학습부담으로 하여 학생들이 과외활동, 문예활동, 체육활동에 참가할 겨를이 없기에 개성특장을 키울 기회가 적게 되며 나아가서 덕, 지, 체, 미, 로 등 제면에서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

셋째로 기초교육임무를 완수하는데 영향을 준다. 응시교육으로 인하여 수업중점이 진학시험과목에 오고 따라서 학생들도 진학시험과목의 부담으로 인해 기타 과목에 정력을 돌리지 못한다. 이리하여 기초교육임무를 완수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회의 참가자들은 조선족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생기는 원인을 여러모로 찾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에 견해가 모두어졌다.

①이중언어를 배우므로 하여 학습부담이 과중해진다. 조선족 학생들은 고중단계에 이르기까지 1,800여 시간을 들여 한어과목을 배우는데 이로 하여 한족 학생들보다 과중한 학습부담이 생기게 된다.

②단순한 진학경쟁과 그에 따르는 교육열로 학생부담이 초래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가 진학이 유일한 평가척도로 되어 학생들에게 초부하 학습이 강요된다.

적지 않은 회의 참가자들은 립신양명과 같은 전통적인 교육관념의 영향으로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과열되어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인기시키기도 한다고 제기하였다.

③실무자질이 낮은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학습부담을 안겨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실무수준이 낮은 교원들은 교수내용에 대한 리해가 투철하지 못하고 교수방법이 타당하지 못하여 학생들에게 과외부담을 과중하게 한다고 제기하였다.

④학교, 가정, 사회의 여러면으로부터 학습부담이 발생된다. 과중한 학습부담은

학교관리가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도 있고 조선족 학부모들이 자식을 《출세》 시키려고 과분한 요구를 제기하여 발생하는 것도 있으며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다고 하면서 회의 참가자들은 과중한 학습부담이 생겨나는 것은 종합적요소를 띠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조선족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시킬 대책을 적극적으로 탐구하였는데 그들이 제기한 주요한 대책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이중언어 교수의 효율을 높여 학습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이중언어 교수의 효율을 더 한층 높임으로서 조선족 학생들이 한어문을 더 배우는데서 인기되는 학습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② 학제를 개혁하여 학습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조선족 학생들이 이중언어를 배워야 하는 실제 정황과 초중단계에서 학습부담이 과중해지는 정황에 비추어 학제개혁을 통하여 학습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가졌다.

토론회의에서는 1987년 7월에 동북 3성 조선문 교재협약소조의 제 5차 회의에서 소학교 6년제, 초중 4년제로 하며 조선족 어린이들을 만 6살부터 입학시키기로 협의한데 근거하여 조건이 구비된 곳에서는 초중단계에 먼저 4년제로 과도할 수 있으며 조건이 채 구비되지 못한 곳에서는 4년제로 과도하기 위한 정신적, 물질적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③ 교원자질을 제고하여 학습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토론회의에서 교원 자질제고를 통해 학습부담을 경감시키는데서는 교육과학리론학습과 실무능력재고가 급선무로 나선다고 제기되었다.

④ 학교, 가정, 사회에서의 협동성을 높여 학습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회의에서는 우리 민족이 전통적인 교육관념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교육관념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교육열이 자질교육에 이바지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조선족 학생의 학습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학교, 가정, 사회 제면에서 종합적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조선족 학생들의 학습문제는 민족교육에서 특수하게 제기되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기에 앞으로 심화된 탐구를 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회의에서는 국제 고려학회 교육부회 위원장 최상록, 중앙교육 과학연구소의 장지의(회족)김룡철, 오예(부이족)등이 각각 《제 3차 조선학 국제 학술토론회의 교육부회 심포지움 개요》, 《중국의 회족과 회족교육》, 《당면 국제형세와 민족교육의 발전추세》, 《서남지구 소수민족 교육상황으로부터 본민족교육의 특수성 및 그 발전대책》이란 제목으로 학술보고를 하였는데 회의 참가자들에게 많은 계시를 주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이번 학술토론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이는 해방후 처음으로 되는 전국적인 조선족 교육의 특징 및 전망연구 토론회로서 현실적 의의와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앞으로 이런 학술토론회가 자주 개최됨으로써 조선족교육 과학연구가 보다 높은 차원으로 오르게 하여야 하며 나아가서 조선족 교육이 선명한 민족적 특색을 띠고 미래에로 부단히 발전하게 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회원연구동향

1. 韓國・朝鮮의 기독교 수용사 연구

藏田雅彦(桃山学院大学 교수)

한국·조선의 기독교는, 18세기에 카톨릭이, 19세기에 프로테스탄트가 전해져, 오늘날 한국의 총인구의 4분의 1, 1000만인을 넘는 기독교 인구를 갖고 있다. 이와같은 기독교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왜 가능하였는가? 해방후의 급성장에 대해서는, 남북의 분단과 6.25동란의 과정에서 형성된 아노미 상태, 이승만의 親美, 반공정책, 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에 수반되는 민중의 소외감과 귀속의식의 욕구 등, 정치사회학적, 혹은 종교사회학적 분석도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의 근원에는 한국·조선에 있어서의 기독교 수용의 상태와 크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역사적인 시점으로부터 한국에 있어서의 기독교 수용의 특색을 확실하게 하므로써 문제해명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조선에 있어서의 카톨릭의 수용은 중국을 경유해 이루어졌지만, 이조시대의 여러차례에 걸친 박해로 인해 충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의 수용은, 개화와 근대화라는 시대상황 아래서,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졌다. 종전 일본의 프로테스탄트 수용에 대해서는 武田清子씨의 사상사적 접근에 의한 분석이나, 隅谷三喜男씨, 工藤英一氏의 사회경제사적 접근에 의한 분석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조선의 기독교 수용에 있어서도 사상사적 접근과 사회경제사적 접근을 병용해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분야에 있어서 선구적 업적로서는 한국교회사가인 閔庚培교수의 일련의 저작(「한국 기독교회사」, 「한국 민족교회 형성론」, 「교회와 민족」등)중에서 기독교의 수용형태를 畿淸형(양반 유교층 중심의 수용)과 西北형(대중 수용형)으로 유형화 했다. 이것은, 기독교를 수용했던 사회층의 차이, 지역성의 차이, 경제기반의 차이 등에 기초해서 수용의 형태를 유형화한 흥미있는 분석이다.

초기의 한국·조선교회의 성장요인으로서의 민족주의와의 결합 및 부흥회(리바이블집회)에 의한 신앙의 숙성등을 들 수 있다. 李萬烈 교수는 초기의 크리스찬 入信의 동기로서, 개화와 구국에의 갈망 및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들고 있다.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수반되는 생명, 재산에의 압박, 그리고 국권의 박탈에 의한 절망감이 크리스찬의 사회참여와 신앙적 깊이라고 하는 2 가지 측면을 초래하였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고 일본에 의해 지배되었던 것이, 서구의 선교사에 대한 비교적 양호한 이미지로 연결된 점도 중요하다. (尹慶老 「한국근현대사의 크리스토포교적 이해」). 그러나, 한국·조선의 기독교의 수용에 관해서 다양한 외적 요인과 함께 內發的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사적인 관점에서는, 특히 서북지방에 있어서 기독교에의 入信층이 소위 「자립적 중산층」이었던 것이 지적되고 있다. (李光麟 교수).

민경배 교수도 대중 수용형의 배경으로서 西北人의 상대적인 풍족, 개방성, 네뵤우스방식의 영향으로서의 자급자립의 정신을 들고 있다. 종전, 네뵤우스방식의 선교에 의해서 부녀자의 전도나 서민층에의 기독교 수용이 설명되어 왔지만, 서북지방에 있어서는 네뵤우스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내발적인 경제력의 축적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타지방에서는 네뵤우스방식이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최근의 연구로서 윤경로 교수는 105인 사건의 연좌자의 직업이나 교육정도 등의 분석을 통해서 서북지방에 있어서 기독교와 민족주의 운동과의 결합을 해명해 기독교의 대중수용의 배경에 이른바 중소 부르조아가 있었던 것을 명확히 했다.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

막스·위버의 이론에 기초한 工藤英一씨나 隅谷三喜男씨의 사회경제사적 방법론이 한국·조선의 기독교 수용에 관해서도 타당할 것을 나타내는 사례라고 생각되어진다. 선교단에 의한 선교구역 분할에 있어서, 서북지방은 미국의 북장로교의 지반으로 되어 있으며, 해방전의 기독교 급성장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해방후, 남북분단, 6.25동란등의 과정에서, 북의 많은 기독교신자가 남쪽으로 도망쳐 내려와 1980년대에 들어와서 국외의 기독교와의 교류가 시작되기까지는 북조선에 있어서 기독교의 존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해방후의 한국교회의 성장은 재요소와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기독교 수용기에 형성되었던, 민주주의 신앙과 경건주의 및 열렬한 신앙형태는 한국교회의 전통으로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 논문은 1992년 기독교사학회 제 43회 대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일본어로 쓴 원문을 번역)

2. 율곡《성(誠)》 철학사상 특징과 그 현실적 계시(啓示)

김 경 진(중국북경민족대학)

율곡 《성》의 개념은 제일 처음으로는 인간의 교제에서 기원하였는데 특히는 사람

의 언론이 실제적이고 기만이 없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중국 맹자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였다면 그것은 《성》을 천도로까지 확대하고 대자연의 존재와 변화는 진실무망(眞實無妄)하며 허위적인 것이 없다고 지적한데 있다.

《중용》에서의 《성》리론은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는 《불성(不誠)하면 물(物)이 없고》 《지성(至誠)하면 불식(不息)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제출하였으며, 둘째로는 인도지성은 두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성인지성(聖人至誠)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사람의 《성》이고, 셋째로는 지성(至誠)의 지위와 작용을 논하였다. 중국 순자(荀子)가 말한 《성》은 비록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성학(誠學)을 간결하게 론하였기에 후세 사람들이 성학을 유가 천인지학(天人之學)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송명 학자들은 《성》을 원만(圓萬)하고 무한(無限)한 인생경지에 도달하는 도경으로 보고 있다. 총적으로 보면 《성》사상과 정신은 중국 유가사상의 핵심의 하나이다. 유가의 이 핵심은 율곡의 《성》철학사상에 직접적인 사상자료를 제공하였다. 때문에 율곡의 《성》철학은 중국 유가의 《성학》을 기반으로 하였다고 하는 결론은 조금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율곡 《성》철학사상의 특징은 첫째로 《주성(主誠)》조선의 주장이나 율곡은 성경(誠敬)관계에서 성은 체이고 경은 용이니 성은 경을 거쳐 연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점은 그의 선배인 퇴계와 다른 점이다. 퇴계는 인성론에서 《주경(主敬)》로선을 주장하였으며 《경》을 《일심》의 주재로 보았다. 둘째로는 《성》과 《의(意)》, 《실(實)》을 련결하여 《성》의 다층차적(多層次的) 내포를 강조한 것은 율곡 《성》철학사상의 다른 한가지 주요한 특징이다.

오늘날 우리가 율곡의 《성》철학을 분석,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적 정신을 부여하여 그로 하여금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일종 철학신념으로 되게 하는 것은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현대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 ①진(眞)으로 성을 론하여 위자(爲字)를 반대하게 하며
- ②신(信)으로 성을 론하여 기자(欺字)를 반대하게 하며
- ③실(實)로 성을 론하여 허위를 반대하게 하며
- ④직(直)으로 성을 론하여 왕자(枉字)를 반대하게 하며
- ⑤정(精)으로 성을 론하여 해자(懈字)를 반대하게 하여야 한다.

3. 한국인 이민자들의 우울증 증상 캐나다 한인 이민자들 중에서의 우울증

노 삼 열(Samuel Noh, Western ontario대학교수)

노교수는 최근 캐나다에 이민하여 정착하고 있는 한인교포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공동연구결과를 두 편의 논문으로 발표했다. 한인교포들중에 <우울증(Depression)>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연구로써, 캐나다의 한인교포에 대한 이와같은 연구는 처음이라고 한다.

(1)한국인 이민자들의 우울증 증상 : CES-D의 설명에 대한 평가(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 Assessment of a Transl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공동연구자 :

Samuel Noh, Canada Western Ontario대학교수

William R. Avison, Canada Western Ontario대학교수

Violet Kaspar, Canada Western Ontario대학교수

이 논문은 Psychological Assessment(1992, vol. 4, No. 1, 84-91)에 실렸다.

이 논문은 캐나다의 한국인 이민자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우울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CES-D모델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있다. CES-D-k모델(CES-D를 캐나다 한국인 이민자에 적용한 것)이 만족할 만하고, 현실적이며, 동시대에 부합된다는 증거들이 나타났으며, 이와같은 CES-D-k모델이 한인 거주자를 포함한 복합문화적인 민족내부를 조사하는데 있어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저자들은 추천한다.

(2)캐나다 한인 이민자들 중에서의 우울증

(Depression in Korean Immigrants in Canada)

공동연구자 :

Samuel Noh, Violet Kaspar, Zheng Wu, Canada, Western Ontario대학교수

Mark Speechley, Canada, Western Ontario대학교수

이 논문은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vol. 180, No. 9)에 실렸다. 이 연구는 Canada의 Toronto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성인 이민자 중에서 큰 지역 샘플에서 나타나는 우울증의 빈도요인과 위험요인(Prevalence and risk factors)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CES-D모델이 DSM-III표준을 적용하여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캐나다와 미국의 이민사회와 더 큰 지역사회와의 사이에,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울증세는 샘플(조사대상자)의 4.5%정도 나타났다. <빈도요인>은 Epidemiologic Catchment Area Studies에 의해서 보고된 수치와 근사하다. 더 많은 거주자들 속에서의 우울증과 관련된<위험요인>은 이 샘플의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역시 발견되었

다. 성(性), 부부간 유무, 재이민하고 싶은 의향, 사회적 지원이 우울증 증후군의 상호변수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었다. 요약하여 말하면, Toronto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자들이 예외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것은 아니며, 이민으로 도착했을 때부터 동포내부의 비공식적 networks에 의한 사회적 지원이 그들의 정신건강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민자가 도착했을 때부터 유용한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민자에 의해서 어떻게 유지되어 왔고, 그와 같은 방식이 어떻게 장기간 보호적 효과를 발휘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 두만강 삼각지역 개발계획

김 응 택(미국 Druxell대학교수)

김교수는 1992년 11월 12-14일까지, Hong Kong, Metropole Hotel에서 Lingnan 대학의 Center for Asian Pacific studies 주최로 열린<제 3 차 동북아시아 원탁회의>에 참가, 논문을 발표했다. 이 회의의 주제는 두만강 삼각지역개발계획 : 공동과제와 역할(The Tumen Delta Development Project : Cooperative Issues and Roles)이었으며, 김교수는 Open Sub-regionalism : A Pacific Model for Global Economic Cooperation in Developing Tumen River이라는 테마로 발표했다.

5. FATIGUE BEHAVIOR OF SINTERED Si_3N_4 UNDER ROTARY BENDING AND STATIC FATIGUE

H.N.Ko 高 行 男
Nakanihon Automotive College

ABSTRACT

Rotary bending and static fatigue tests were carried out at room temperature on sintered Si_3N_4 whose diameters were 8 and 6 mm. An Ono's rotary bending fatigue testing machine was used on the operating condition of 3420 cycles per minute. The rotary bending test was performed within the range 10^4 to 10^9 stress-cycles. Besides, the static fatigue test was performed for less than 10^7 seconds using the non-rotating fatigue machine.

The fatigue behavior under rotary bending was different from that under static fatigue. The value of n under rotary bending was much smaller than that under static fatigue, in the expressions of $\sigma^n N = \text{constant}$ and $\sigma^n t = \text{constant}$, and the

assumed fatigue limit for the former was lower than that for the latter. However, both assumed fatigue limits showed the similar relationships between the strengths and the specimen sizes. The characteristic appearance of mirror-like regions on the fractured surfaces after both fatigue tests were almost the same as those after the static test. The size of each mirror-like region was found to have stronger correlation with the applied Stress than with the loading condition. Stress intensity factor at the deepest point in the mirror-like region was also nearly constant. No remarkable difference between fatigue fractured morphology and static fractured one could be found even under microscopic observation. The existence of the fatigue limit, the basic character of rotary bending strength, the size effect on the assumed fatigue limit and the fatigue fracture features are discuss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6 . The Monte Carlo Simulation for Morphology of a-Si:H Deposited with Plasma CVD Method

- ①正員 鄭 萬 佑(大阪電気通信大)
- ②正員 山 脇 重 信(近 畿 大)
- ③正員 今 尾 勝 三(近 畿 大)
- ④正員 犬 石 嘉 雄(大阪大名誉教授)

Shigenobu Yamawaki, Member(Kinki University), ManU Jeong, Member(Osaka Electro-Communication University), Syozo Imao, Member(Kinki University), Yoshio Inuishi, Member(Professor emeritus, Osaka University)

Monte Carlo Simulation of a-Si : H thin film growth deposited by plasma CVD are carried out to examine the morphology model of a-Si:H in the terms of film growth reaction, etching reaction by atomic hydrogen and surface diffusion of silance radicals radicals along the surface. A model have been proposed by us based on various experimental facts in which the morphology of a-Si : H consists of Si cluster regions and Si-H alloy regions. Experimentally, cluster regions seem to increase and alloy regions decrease with increasing substrate temperature, respectively. The simulated results about the hydrogen content and graphics turned out to support our proposed model. The physical phenomena depending on substrate temperature such as Staebler-Wronski effect and carrier drift mobility can be explained well by the results of this Monte Carlo Simulation.

(이 논문은 전기학회 논문지 A, 112권 12호, 1992에 발표한 것이다.)

〈특집〉

제4회 이중언어학 국제학술회의 -재일동포의 이중언어문제-

- 주 최 : 한국이중언어학회
국제고려학회
- 일 시 : 1993년 1월 22~23일
- 장 소 : 일본, 오사카부 교육회관

〈일정〉

제 1 일

등록 및 개회식 : 8 : 30~ 9 : 30

발 표 : 9 : 30~12 : 30

제 1 부 이중언어 연구의 최근동향(진행 : 김진우 · 송남선)

주제발표 : Harold Chu(George Mason Univ)

“The Role of First Language In Acquisition of Second Language”

논문발표 :

김정숙(고대 어문화연수부) · 원진숙(이대 언어교육원)

“한국어 말하기 능력평가기준(能力評價基準)설정을 위한 연구”

백종학(Illinois Univ)

“미국거주 한·영 이중언어자의 동질성(同質性)위기”

강헌규(공주사대)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

발 표 : 13 : 30~19 : 00

제 2 부 국어학 일반(진행 : 최기호)

논문발표 :

배윤덕(성신여대)

“유희(柳僖) 언문지(諺文志)에 대하여”

이승명(부산여대)

“국어 색상표시 어군(色相表示 語群)의 구조에 대한 연구”

신경철(상지대학)

“15세기 주석식 자석(註釈式字釈)에 대하여”

이영숙(상명여대)

“한국어 신체어의 관용적 표현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의 활용”

박갑수(서울대)

“동양문고본(東洋文庫本) 춘향전의 문체양상(文體樣相)”

서정수(한양대)

“한일 양국어의 일부 조사의 비교”

고창수·시정곤(고려대)

“향가 동사의 통계적 연구”

제 2 일

발 표 : 9 : 00~11 : 00

제 3 부 남북언어 이질화의 극복(진행 : 김민수 · 양관수)

주제 발표 :

최기호(상명여대)

“남한과 북한의 언어정책(言語政策)”

고영근(서울대)

“한반도 우리말 연구의 통합(統合)을 위한 테제”

최윤갑(연변대학)

“중국 조선족 교육으로부터 본 조선어 철자법의 문제점”

발 표 : 11 : 00~16 : 30

제 4 부 재일동포의 이중언어교육(진행 : 박갑수 · 김성수)

주제 : “재일동포(在日同胞)의 모국어교육(母國語教育)현황과 문제점”

주제 발표 :

1. 박병윤(백두학원 평의원)

민족학교의 교육현황과 문제점

—민단계 민족학교를 중심으로—

2. 김홍규(역사학자)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에 대하여

—그 력사와 현황—

3. 오 만(오사카경제법과대학)

일본의 공립학교에서의 민족학급에 대해서

4. 김송이(오사카조선고급학교)
재일자녀를 위한 총련의 민족교육현장에서
-오사카조선고급학교에서의 <국어>수업과<세계문학>수업을 두고-
5. 홍석화(오사카금강학원)
모국어교육의 현장, 민족학교
-금강학원을 중심으로-
6. 정병표(건국학교)
우리말지도의 현황과 과제
-백두학원 건국학교를 중심으로-
7. 양 순(켄브릿지대학)
이데올로기적 공동체 재생산의 기술적수단으로서의 총련의 국어교육
8. 리숙녀(오사카시립 나가하시소학교)
日本の学校における民族教育
9. 任喜久子(오사카부립 항남고교)
日本の高等学校における朝鮮語教育
-大阪府立高校を中心に-
10. 김 정(나고야 한국학교)
일본에 있어서 한국어교육의 문제점

《종합토론》

재일동포의 모국어교육(진행 : 정광 · 오만)

참가자 : 박병윤 정병표 김홍규 양 순 오 만
 리숙녀 김송이 任喜久子 홍석화 김 정

만찬 18:00

한국이중언어학회와 국제고려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이중언어학 국제학술회의가 「재일한국·조선인의 모국어교육과 이중언어문제」라는 테마로 지난 1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오사카부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회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개최되었으며, 양일간 개최된 본 대회는 세계 각지역(미국, 중국, 영국, 한국, 일본)에서 약 200명에 달하는 연구자와 재일동포의 교육일선에서 일하는 현직교사가 대거 참가하여 활발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회의는 양일간에 걸쳐서 전체 4부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첫날 오전중에는 제 1부가 「이중언어연구의 최근의 동향」이라는 테마로 김진우(Illinois 대학교수), 송남선 본부사무국국장의 진행으로 시작되어, 미국의 George Mason대

학 Harold Chu교수가 「제 2 언어 취득에 있어서 제 1 언어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재미교포의 민족교육의 실상을 소개하면서 우리말을 기본으로 하고 영어를 습득하면 효과적이며, 아이들의 지적발달에 도움이된다고 보고하였다.

오후에 시작된 제 2 부에서는 「국어학일반」이 최기호(상명여자대학)교수의 진행으로, 둘째날 오전중에는 「남북언어 이질화의 극복」이라는 테마로 김민수(고려대학) 교수와 양관수 본부사무국차장의 진행으로 논문이 발표되었다.

본 회의의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제 4 부는 「재일동포의 이중언어교육」이라는 테마로 박갑수(서울대사범대) 교수와 김성수 본부사무국차장의 진행아래 보고, 논의되었다.

김홍규(역사연구가)씨는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에 관해서」라는 제목으로 해방이후 민족교육의 역사에 관하여 보고하고, 민족교육을 둘러싼 환경은 심각한 상태라고 말한 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이후의 의식이 우리 민족교육 보장문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박병운(민단중앙교육위원)씨는 「민족학교의 교육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보고하면서 재일동포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민족심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적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일동포는 지금 민족교육을 구심점으로 “분단병”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구적 민족공동사업으로서 통일교육을 추진해야 하며, 남북양정부도 공동으로 「재일동포대책 협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김송이(오사카조선고급학교교원)씨는 「재일자녀를 위한 총련의 교육현장에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어 교재를 읽고 모국어로 감상문을 쓰게하는 방법을 소개하였고, 홍석화(금강학원교원)씨는 「모국어교육의 현상과 민족학교」라는 제목으로 재일동포의 현실을 잘 알고 이해하는 교원이 필요하고, 일본의 현행학교교육법의 제한 때문에 주 3~5 시간 밖에 국어시간을 가질 수 없는 등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정병표(건국학교교원)씨는 국어의 기초회화 수업시간에 일본어 사용을 거의 생략하므로써 전학년에 비하여 전체성적이 현저히 향상되었다고 성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오 만(오사카경제법과대학교수)씨는 민족학급의 육성문제를 중대한 과제라고 전제한 뒤, 한글교재 개발 및 민족학교강사의 신분보장과 더불어 자질향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숙여(오사카시립나가바시소학교민족학급강사)씨는 「일본학교에 있어서 민족학교」라는 제목으로 해외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민족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일본학교중에 우리 자녀들이 10%이상 재적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민족학급을 설치해야 하며, 현행 민족학급의 주 1~2 시간으로는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任喜久子(오사카부립판남고교교원)씨는 「일본고등학교에서의 조선어교육」에서, 정규과목으로 조선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공립학교의 상황을 소개했다.

김정자(나고야한국학교강사)씨는 최근 일본인들 사이에서 우리말을 배우려는 사람

들이 늘고 있다고 보고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동포들 사이에서는 귀화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재일동포의 존재(법적)가 없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각 민족단체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경종을 울렸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미국, 중국과 같은 다민족 국가에서처럼 최소한의 소수민족정책이 보장되는 나라와는 달리, 일본처럼 역사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족교육이 실천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의미깊은 일이다.”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재일동포들이 모국에 가서 우리말 교육을 받고 돌아와 후배들을 지도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등 많은 의견이 교환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450만 동포의 민족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비롯해, 일본정부 당국과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었음과 동시에 이러한 실태를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또한 총련과 민단체에 소속되어 민족교육의 선봉에서 일하는 일선교사와 연구자가 한 곳에 모여, 비판과 성원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민족교육의 장래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은 차라리 숙연하기까지 했다.

이번 대회가 우리민족의 아픔을 공유하며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필연적 협력관계의 장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성과이며, 민족대화합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재일동포의 모국어 교육을 테마로 제 4 부 주제 발표자들과 참가자들이 종합토론하는 장면

회 원 기 고

제 4 차 조선학 국제 학술토론회에 참가하여

고 병 운 (大阪經濟法科大学客員教授)

이 학술 토론회에는 제 1 차 때는 참가 못했지만 제 2, 제 3, 제 4 차 세번 참가하여 느낀 점을 한마디 하고저 한다.

학회 때마다 세계 여러나라 지역에 흩어져 생활하고 사업하는 겨레학자 연구자들이 한마당에 모였다는 점도 있어서인지 정답고 서로가 할 말도 적지않다. 초면이면서도 구면과 같고 이야기에 꽃이 피어 시간가는 줄 모른다.

더구나 술이 들어가면 이 장면은 최고 절정에 달한다. 국제학회에는 혼이 있는 일이지는 하지만 특히 조선학 국제학술 토론회의 경우는 그 의미가 질적으로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것은 참가한 학자들이 자기조국 고향을 등지고 타향에서 생활하며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들은 언제나 조국, 고향, 부모, 친척, 겨레를 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들 모두가 확고한 자기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겨레들이 세계 여러나라에 약 400만 이상 흩어져 살고 있는 실정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라없는 망국노로 일제 통치하에서 30~40년, 북남으로 나뉘어져서 50년이 가까와 온다.

이대로 지나간다면 해외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말도, 우리의 미풍양속도, 우리의 찬란한 문화도, 우리의 귀중한 력사도 저버릴 것이고 여러나라에 동화되고 말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걱정, 우려심은 우리모두의 가슴마다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초보적인 문제, 우리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 조선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보존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귀중하고 중요한 조선학을 지키며 발전시키는 것은 조국(북남)의 학자, 연구자들이 거둔 성과들을 조선학회를 통해서 흡수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해외교포 2세~5세들이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이며 그 지역, 그 나라에 동화되는 문제는 심해질 것이다.

조선학 학도들 모두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선학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민족을 살리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선학 학도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고려학회를 회원 자신의 학회로 만들기 위하여 회원의 의견을 방침화하고 주관과 개인중심의 독단을 배제해 나가며 회원들의 친근감을 가지는 학회로 발전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

1993. 1. 5

朝・日국교 정상화의 문제점

李 智 仁 (재일사회과학자협회 서일본본부 부회장)
아시아 문화교류센터 회장

1990년 9월 조선노동당, 자유민주당, 일본사회당, 3당 공동선언으로부터 2년, 그간의 3당, 党人끼리의 교류가 있기는 하였지만 교섭이 정부차원으로 달라지는 등 8차례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교섭의 原泉이 될 議題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 대화의 장으로 되어야 할 회담이 대립논쟁의 장이 되고 쌍방 모두 사전탐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처음부터 정부간에 있어서는 불심양면으로 충분히 뒷받침된 준비와 각오가 없었다. 단지 국제정세의 변화에 휩쓸려 동·서독의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미·소냉전 양극체제가 급격히 변화되었다.

조선에 있어서 분단 대립관계도 수차례 교섭이 이루어져, 38度線을 둘러싼 군사 긴장도 어떻게 하든지 완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남북간의 정치, 군사, 경제 등 몇차례의 회담도 계속되어 조국통일의 기운이 고취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완강한 공화국 적대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정책이 아니라는 양심적 정치가나 문화인을 비롯해 국민여론이 고양되어, 전 竹下 수상, 海部총리 등이 국회에서 식민지 시대의 유감 「반성」표명을 하는 등 1990년 당시로서는 제 2 富士山丸 「紅粉선장」문제등이 얽혀 양국의 국교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무드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金丸부총리, 田辺위원장의 訪朝때 김일성주석과의 회담을 진행하는중 3당간의 협의에 의해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으며 공화국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졌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일본정부도 「3당선언」까지 진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임에 틀림없다. 「공동선언」이 공표되어 그것을 원안으로 정부간교섭이 이루어지는 순간, 양국의 이해득실, 국가적 애고이즘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당초 쌍방의 입장차가 선명하여 근본개념(이념)이 180도 달라서 물과 기름과 같이 기본적으로 어우러지지 않았다.

(1) 우선 첫째로 조선의 입장은(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이 침략이며 일본군 제압하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이며, 민족자결권(18세기학설)을 무시했다는 국제통념과, 또 「丁未7条約」 그것 자체를 조선국왕 고종이 옥쇄서명을 거절한 사실, 「乙巳5条約」에서는 일본 천황의 서명조차 없는 사실을 보아도 일본측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런데도 일본은 일련의 「한일합방 旧조약」이 마치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실시되어, 마치 양 국민의 의지에 의해 「병합」 「합법성」을 가진 것처럼, 주장해 일본정부는 잘못된 사고를 여전히 고수하면서 바꾸려고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 대만과의 국교정상화교섭에서도 나타나듯이 마치 原告로써의 승자의 주장을 반복해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로서의 죄의식이 전혀 없다. 「한일합방」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1894년 8월 22일 일본군에 의한 재정외교 고문에 의해 고문정치가 시작된 것. 1905년 11월 17일 제 2차 한일보호조약(한국 매국 오적과의 뒷거래에 의한 乙巳조약), 조선통감부(통감, 伊藤博文)가 외교권을 장악해 통감정치를 실시. 1907년 7월 22일 한국내 정권을 장악. 1910년에는 한국의 경찰권은 완전히 일본의 헌병이 장악한 것으로 되었다. 그 사이에 한국의 경제권도 1908년 동양척식회사 창립을 비롯 그 다음 해에는 「한국은행」개설과 식민지화를 위한 「토지조사사업」도 시작하여 이들 「한일합방」까지의 조문이나 경과를 보아도 무엇하나 조선민족의 의지나 정당한 국가적 합의가 이루어졌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이들의 부당불법행위를 인정하기는 커녕, 그 일련의 조약이 지금도 정당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조선과의 교섭에 임하고 있다. 조선측에 따르자면 항일 빨치산투쟁을 거쳐 주체적 자주立國을 관철해온 정신의 면에서도 「3당선언」에 포함된 기본정신의 면에서도 「한일합방조약」의 합법, 정당성을 절대로 인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우선 원안을 만드는데 양국의 공통개념과 교섭개념의 근본적 접점을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 우선 대표단의 정신구조상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1. 첫째로 「선언」의 원점을 회고해 볼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당의 海部수상친서, 일본사회당 土井위원장의 친서가 김일성주석에게 전해진 후, 3당 공동회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의 의의를 알 필요가 있다. 우선 竹下 전총리가 1987년 3월 국회답변에서, 과거 36년간의 조선인민에게 입힌 불행과 재해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표명했다. 이어서 「海部총리」와 「金丸부총리」가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것도 「공동선언」에는 명기되어 있다. 8차례에 달하는 회답에서 일본대표단으로부터는 그 과거의 반성도 사죄하는 의지도 처음부터 일본측에 없었던 것을 조선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것 뿐인가. 피고석에 있어야 할 일본이 전부 생트집을 잡아 경제력을 배경으로 旧일본군적 오만한 태도로 나오는 것을 조선측에서는 참을 수 없을 것이다.

2. 둘째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해 조속한 시기에 국교를 수립한다는 선언 인정에도 불구하고 「핵사찰문제」, 「이온해문제」등 공동선언과는 관계없는 문제를 연달아 일본측에서 제기하고 있다. 핵사찰문제를 받아들여 보더라도 조선측에서는 말하자면 교섭에 직접관계가 없는 사항이며, 일본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조선은 이미 자주적인 입장에서 IAEA보장협정이 이루어져 핵사찰을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일본이 푸르트를 대량수입 비축하여 핵무기를 내일이라도 만들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스스로 숨기고 있다. 공화국측에 「핵개발 의혹」을 드리대는 것은 핀트가 맞지 않다.

미국의 조선정책 의도를 추종해, 문제, 징병, 징용문제 등 한국과의 보장을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새롭게 생긴 점. 우선적으로 한국배상을 유리하게 유도한 뒤, 공화국과의 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지연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3. 세번째 문제로서 朝·日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발전시키는 면에서도 일본의 정치는 「佐川急便문제」나 皇民党사건과 竹下 전 총리, 金丸 전 부총리, 사회당 田辺위원장 등 외무관료에 대한 정치행사력이 저하돼, 그 영향력이 약해진 것도 그 지연의 요인이다.

미국국무성 지배하에 있는 전후일본 외무성 관료의 일관된 비자주성에다 바블경제의 위기, 우르파이라운드나 쌀 문제 등, 미국과 EC간 무역마찰, 美·日간의 무역불균형과 대립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채, 국내에서는 금융, 증권, 기업 모두 불경기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다. 조선과의 경제교섭을 3당은 빈번하게 하자고 선언했지만, 현 단계에서 일본이 조선측과의 무역에서 눈에 보이는 이익은 생각할 수 없다. 일본은 차라리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경제권 구축과 기업진출을 旧영·미·불을 대신해 지배권을 획책하고 있다. 단지 환일본해 경제개발의 일환으로써 두만강의 하구 부동항 개발에 의한 구소비에트권, 동북아시아 무역이나 기업진출을 위해 육로 이용이 보다 효과적이고, 동유럽에 대한 경제효과는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정치불안과 동북 4島の 반환 미해결에 의한 러·일외교의 냉각 때문에 일본측은 그것도 성급한 문제라고는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 뿐인가. 「国連軍(PKO)」이름을 빌어서 캄보디아 해외파병과 旧천황제의 부활과 군사력강화, 교과서 왜곡, 태평양 전쟁과 旧식민지 파쇼주의 정당화의 교육 등 최근 특히 복고사상이 「황실」선전과 맞물려서 매스컴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듯이, 국내 정치체재의 재편과 국수적 사상통일을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조선과의 문화교류를 받아들이다더라도 일부 음악가의 공연교류는 하더라도 그 이외의 부문에 대해서는 그만큼 받아들여져야 할 교류는 없다. 정치, 경제, 문화 어느쪽을 보아도 특별히 서두를 필요성이 일본측에는 없는 것이 실상이다.

4. 재일조선인의 민족적 제권리, 그 보증을 「선언」에서는 명기하고 있지만 민족교육 문제 하나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6·3·3제 입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법 제 1조, 학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지금도 「각종학교」로서 취급 당해 私学조성금, 장학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것 뿐인가. 관·민에 의한 민족차별과 탄압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이 실태이다. 40여년간의 긴 전쟁의 결과, 「지문날인」은 폐지되었지만 그것 이상으로 서명, 사진은 물론 전 가족을 몽땅 등록시키는 것에 의해, 가족 전원을 官憲에 의한 지배 관리하에 둔다는 「법제도」로 살짝 바꾸어, 말하자면 「지문날인」보다 실생활상에서 「外登法」의 개정은 전진은 커녕 개악이라고 할 수 있다. 발달된 일본에서는 「특수영주자」, 「법정영주자」를 불문하고 외무성이나 경찰청의 컴퓨터에 입력되어 손자의 서까지 관헌의 감시 밑에 놓여져 있다. 전일본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일본은 전통적으로 배타성, 폐쇄성,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재일외국인은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알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거, 취직, 기업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일본의 官 및 民의 일괄된 차별은 법 이전의 문제로서 미해결인 채로 놓여있다. 이후 戰前을 모

르는 세대와의 세대교체와 함께 일본교육의 모습을 주시해야 한다. 재일한국적 조선적을 불문하고 법적지위에 대한 근본적 개념은 형사법적 관리 대상이고, 민족적 권리를 보장, 확립하지 않는 점으로부터 쌍방의 불신감, 위화감 등 양민족 사이에 놓여진 감정의 골은 깊어질 뿐이다. 회담자체도 우호친선의 분위기에서 국교정상화로 나아가야 이 문제도 해소되고, 민족상호의 선의와 양심의 새로운 짝이 자랄 것 이런만 …….

5. 3당은, 조선은 하나, 남북대화의 환기와 민족적 이익을 인정한다 운운하고 있지만 일본정부의 본심은 의식목적적으로 분단의 고정화를 지향하여 일이 있을 때마다 조선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분단통치를 꿈꾸는 식민지 주의자가 통일을 지원·원조할 리가 없다. 어디까지나 통일은 조선민족 자신의 자주성과 주체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6. 평화와 자유의 아시아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하지만 거듭 말하자면 경제대국을 이용해 자위대를 군대로써 강화해, PKO로 이름을 빌어 해외파견, 동남아시아 경제이권 보호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소비에트 붕괴 후의 동시대립이 약화되어 세계는 군비축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만이 예산을 보더라도 군비강화를 열심히 하고 있다. 핵폐기를 주장하면서도 프로트늄수입, 전력의 이름을 빈 원자로의 확대건설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서 공화국에 대해서만 「핵시설사찰」 운운, 추락된 비행기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모략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이른해 문제를 끄집어 내어 회담의 지연책을 구사하고 있다.

7. 1990년 11월 회담에서 일본측의 일관된 자세가 국교정상화에 직접 관계도 없는 난제를 끄집어 내어 8차례나 일본측이 회담을 엉망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선측에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전가시키는 것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인가.

8. 2년에 걸쳐 8차례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볼 수 없었던 것은 결국 일본정부가 국교정상화할 의욕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과, 3당 공동선언 정신으로부터 유허된 외무성 관료주도에 의한 독특하고 교활한 외교교섭으로 가져가 「한일조약」과 같이 근본문제는 피하고, 불과 얼마 안되는 조성금으로 식민지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시킬려고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또 사실 일본의 입장은 朝·日국교정상화교섭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본심이라고 생각되지만 …… 朝·日국교교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에는

①旧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旧조약의 개념을 합법적인가 비합법적인가의 문제와 맞추어서 법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일본이 가해자로서의 인식, 도덕적 양심과 「황군」적 정신의 청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②보상문제도 백여만의 조선인의 희생, 6백만을 넘는 노예적 강제노동, 20만에 달하는 「중군 위안부」의 보상은 물론 도덕·윤리적으로도 반성과 책임을 져야한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식민지 시대의 자원약탈을 잇고, 개척이라는 명목하에 실시되었던 일본회사의 자산설비에 대하여 자산「청구권」등을 들고나와 일본이 조선에 대한 배상과 보상 책임으로부터 도망가려하고 있다.

36년간에 걸친 민족국가의 자주적인 발전저해와 일본의 약탈은 질과 양에 있어 조선의 피해는 비교조차 되지않을 정도로 막대하다.

③전후배상과 보상문제도 일본 전국토를 미국의 기지로 제공해 「조선전쟁」에 「특수」라는 명목하에 인적, 물적(무기수송, 무기수리, 탄약제조)으로 가담하여 일본이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는 것은 만인이 알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 조선인민의 희생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그 책임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가해자의 공범자로서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

앞에서 「한일조약」이 미국의 한국정책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년이나 걸린 점, 더욱이 지금 「불만족한 조약」으로 지금까지도 미해결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조선전쟁을 경험하였어도 주체적 자주 독립사상으로부터 원칙은 변치 않았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메스컴이 이야기하는 경제처국 운운…….

소비에트와 같은 정치적 사상 파국을 기대하여 일본측이 교섭을 연기하는 것은 어긋난 기대이며 기대를 건다는 것은 잘못이다.

내가 아는한 조선은 행정기구도 완비되어 있고, 정치적 사상도 학습하여 잘 통솔되고 있으며 전후 부흥사업을 거쳐 경제적으로 hungry정신과 자립 갱생에는 익숙해 있다는 점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유일한 戰前문제의 미해결국, 비정상화국으로서 이웃나라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朝·日국교정상화는 긴 도정이지만 꼭 이루어질 것이다.

1. 집권당인 자민당, 제 1야당인 사회당 그 외의 정당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정당은 찾을 수 없다.

2. 大阪府下の市, 町, 전 의회 국교정상화 찬성 결의를 비롯해 일본 전국 2千5百道府縣市町村 의회결의가 되어 있는 점. 일본국민의 양심적 여론…….

3. 일본이 아시아에 있어서 정치발언을 강화,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朝·日국교정상화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점.

4. 일본이 UN에 낸 다액의 거출금을 믿고서 「UN상임이사국」을 노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조선과의 「국교정상화교섭」은 아시아 인민과 세계의 주시의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여러차례에 걸친 침략을 비롯해 明治이후 80여년간 일본이 이웃나라여서 일방적으로 물적, 정신적, 문화적 파괴와 언어, 문자, 姓氏조차도 빼앗아 버린 것을 생각하면 조선민족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미래에 살아갈 자손을 위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로서 영민한 사람끼리 양심과 선의 인류애로서 해결해 공존하지 않

으면 안된다. 그것이 아무리 멀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원고를 끝맺기 전에 나는 여기에 「독일」의 와이츠 젯커 대통령의 1985년 의회연설을 부기하면서 끝내고 싶다.

「과거는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 눈이 먼 사람에게는 결국, 현재에도 맹인이 된다」…일본정부와 대표단에 보내는 충고…

(일본어 원문을 번역한 것임)

알 림

○제 1 차 미국 코리아학 국제학술회의

시 기 : 1993년 7월 7일~11일

장 소 : 미시간 주립대학(MSU)

주 최 : 국제고려학회 미주지역 본부(ISKSA)

미시간주립대학

한양대학

후 원 : 大阪정보 컴퓨터 전문학교(OIC)

이번 회의는 15개 부회(예술·체육, 경영, 경제, 교육·문화, 환경, 역사, 언어, 문학, 의료, 철학·종교, 정치·법률, 행정·계획, 과학·기술, 사회, 여성)가 설정되어 있다.

첫번째 알림에서 알린 바와 같이 “21세기를 향한 한반도의 변환: 평화, 조화 그리고 진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전세계적, 범민족적, 종합분야적, 지속적 모임>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준비되고 있다.

○정정

지난 회보 2호에 「조총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총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OIC 국제학술회의

國際심포지움－東아시아의 컴퓨터 技術과 教育의 現狀과 課題－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puter Technology and Education in East Asia

下記와 같이 國際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참가신청등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심포지움 事務局으로 連絡해 주십시오.

1. 名 称 : 國際심포지움－東아시아의 컴퓨터 技術과 教育의 現狀과 課題－
2. 主 催 : 大阪情報컴퓨터 專門學校
3. 後 援 : 大阪府・大阪市・日立・NEC・IBM
4. 日 時 : 1993年 7月 26日(月), 27日(火)(2日間)
5. 会 場 : 日本・大阪國際交流센터

大阪市天王寺区上本町 8-2-6 TEL 06-772-5931

6. 部会構成

● 第1部会(컴퓨터 技術)

○ 第1테마 「各國의 컴퓨터 技術 특히 소프트웨어 開發研究의 現狀과 課題」

지금까지 各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되어온 컴퓨터산업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지역내의 各국 사이의 상호이해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앞으로 컴퓨터기술,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장래를 전망해 본다.

○ 第2테마 「東아시아의 言語情報處理에 대해서」

언어정보처리 기술분야의 연구발표를 통해서 各국간의 언어의 장벽을 낮추는데 있어서 컴퓨터기술응용의 가능성을 추구하고, 지역내의 여러나라 사이의 기술협력관계를 더욱 깊게 한다.

● 第2部会(컴퓨터 教育)

○ 第1테마 「各國의 컴퓨터 教育의 現狀과 課題」

各국의 컴퓨터 보급과 정보화 사회를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그 경험과 성과를 발표하고, 상호이해를 깊게 한다.

○ 第2테마 「東아시아에 있어서 지역내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各국의 컴퓨터교육의 현상과 과제에 대한 발표를 바탕으로, 지역내의 컴퓨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가능한 협력관계를 만드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7. 使用言語 : 日本語・英語(同時通訳)

8. 參加者

海外參加者 : 大韓民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中華人民共和國, 台灣, 러시아 連邦, 米國(하와이), 그외 지역에서 20~30名 予定

日本國內參加者 : 約 200名

※ 開催기간중 日立/NEC/IBM等 컴퓨터 製조회사에 의한 展示會를 併設합니다.

심포지움 事務局 : (連絡先)

〒543 大阪市天王寺区上本町6-8-4 大阪情報컴퓨터 專門學校

6-8-4 Uehonmachi Tennoji-ku Osaka 543, JAPAN TEL : 06-772-2233

Osaka Information and Computer Science College FAX : 06-772-1272

事務局長 : 三井 邦夫

편집후기

양 관 수(회보 편집인)

회보 제 3 호는 회원연구동향과 회원기고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이 있어서 상당히 부피가 두툼해진 느낌이 든다. 앞으로 회원연구동향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꾸미고 싶은 구상을 가지고 있으나, 회원들의 열성여하에 그 성과가 달려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본 학회의 정기학술지 발간에 관한 문정인 교수의 제안을 바탕으로, 현재 본부사무국에서는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회원들의 의견이 있으면 본부사무국으로 제안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다.

김영립 선생이 정리한 교육부회학술회의는 중국 조선족의 조선어 문장의 특색을 기본적으로 살리면서 이해하기 힘든 표현만을 약간 고쳤다. 노삼열 교수와 김응택 교수의 논문은 영어로 보내왔으나, 회보지면의 제한상, 핵심적인 요지만을 편집인의 일방적 재량으로 정리소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소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회원기고 중에서 이지인씨의 글은 일본어로 쓰여진 원고를 한국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한국어 표기법으로 되었다. 앞으로 조선(한국)어로 쓸 수 있는 분은 조선어로 쓴 원고를 보내 주시길 바란다. 회원기고란은 A4 크기의 2 페이지(400자 원고지 5~6매) 이내로 제한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투고할 회원들은 잘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

<특집>으로 기획된 이중언어학 일본국제학술회의에 대해서 이번 회보에서는 논문의 내용을 모두 소개하지 못했지만, 발표된 논문과 토론의 내용을 한 권의 논문집으로 발간하기로 되어 있다. 논문집이 발간되면, 회원들에게 우송할 것이다.

본 학회 제 2 차 총회를 거치면서 역원도 개선되었고, 앞으로 남북에서 회원이 가입하게 되므로 본 학회의 구성이 더욱 풍부하게 되어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리라고 예상된다. 미주지역본부도 금년 7월 미시간 대학에서 열리는 학술회의를 계기로 해서 조직적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새로운 역원과 개편된 조직에 관해서는 다음 호에 게재할 생각이다.

앞으로 회원들의 연구동향과 기존 저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할 지면을 대폭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므로 회원들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ISKS)

國際高麗學會

發行人 宋南先
編集人 梁官洙
發行所 國際高麗學會本部事務局
發行日 1993年3月31日

日本国大阪府八尾市染菅寺6丁目10番地

大阪経済法科大学内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 Law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6-10 Gakuonji, Yao, Osaka, 581 Japan
TEL 0729 (41) 8211 EX. 432, 434
FAX 0729 (41) 4665